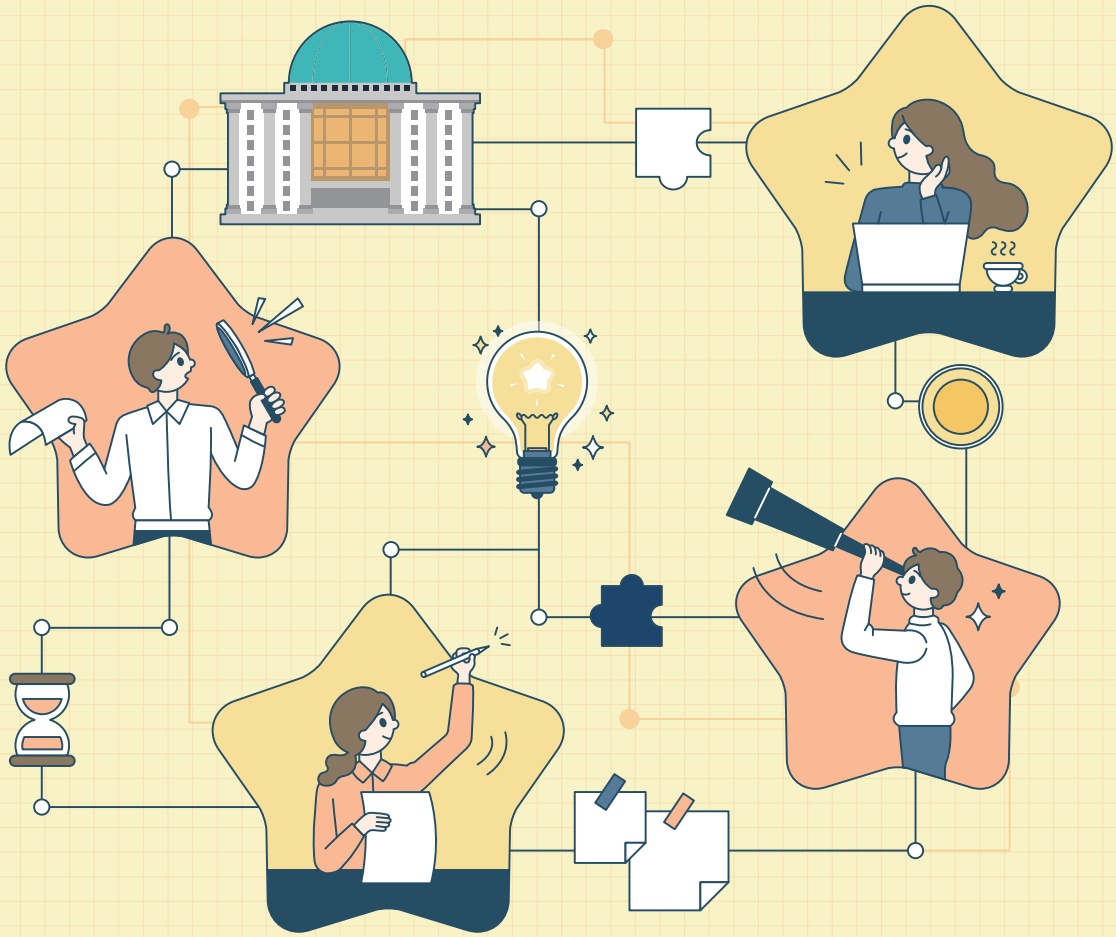
발간등록관리번호
GCYF-2023-02-002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특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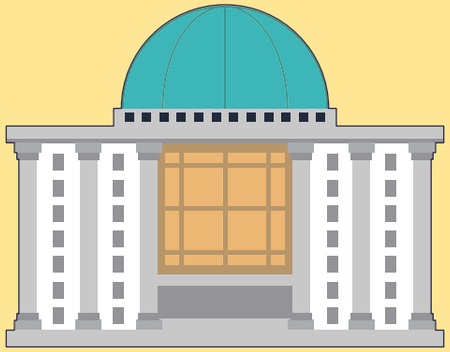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집



고양특례시 |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고양시청소년의회 Goyang City Youth Council |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제6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집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고양시청소년의회란?

-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특례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 출범식, 정책워크숍, 견학, 의정활동(정책제안,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 보고회, 본회의 개최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고양시 · 의회에 제안하는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

추진근거

1)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UN, ICNYP)의 권고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2)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 · 협의 ·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 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양시 조례 제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고양시청소년재단 비전 및 전략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 현황

연도	의회	최초 활동인원	담당부서	의장단
2017년	1대	29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의장 박기병 부의장 유정은
2018년	2대	24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의장 노하영 부의장 강유수
2019년 6월 ~2020년	3대	26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의장 박정원 부의장 김수빈
2021년 4월	-	-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마두청소년수련관 이관	-
2020년 6월 ~2021년	4대	22명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의장 김민제 부의장 최보근
2022년	5대	24명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의장 김가영 부의장 조해원
2023년	6대	26명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의장 조해원 부의장 박채야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2023년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주요 의정활동

12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11월 청소년의회 홍보부스 운영(마두청소년수련관 개관10주년 행사 참석)

10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8월/9월 정책제안준비
안전 / 교육 / 문화 / 인권 4개 상임위원회 정책제안 회의
상임위 제안정책 관련 고양특례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추진
정책제안서 및 조례(안) 작성

7월 정책워크숍(1박 2일)
국회의사당&청와대 견학, 상임위원회 제안정책 현황보고 및 회의

5월/6월 전문교육 이수
사회적경제&사회적 가치 교육, 경기도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4월 출범식
제6대 청소년의회 출범, 의장단 선출, 모의회의(제5대 본회의) 등

3월 개원(청소년의원 26명)
오리엔테이션, 상임위원회 구성 등

1월/2월 청소년의원 의원 선출 및 멘토 모집

2022
12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10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7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국회의사당 견학
5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3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4명)

2021
11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10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시의원 간담회 개최
8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2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7명)

2020
11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10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2회차)
2~8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2019
12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8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1회차)
6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선출(청소년의원 26명)
4월 타 시도(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벤치마킹

2018
9월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8월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 교육
7월 경기도 성남시 & 경상남도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원교류
5월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청소년정책주장대회'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3월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27명)

2017
12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평가회 개최
9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8월 국회체험
7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30명)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
1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고양시조례 제1834호 / 2017.1.13.)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30인 / 멘토 6인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 확대 및 증진
문화상임위원회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하는 톡톡(TalkTalk)'
안전상임위원회	바닥신호등 설치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6인 / 멘토 5인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카페 증설
안전상임위원회	공용 자전거 활성화 학교 옥상 관련 규정 제정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6인 / 멘토 3인

교육상임위원회	과학실험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활성화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독서문화 증진 방안
안전상임위원회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0인 / 멘토 2인

교육상임위원회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확대 보완 요청
문화상임위원회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환경축제-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
인권상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18인 / 멘토 5인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법·경제 축제 지원
문화상임위원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안전상임위원회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의 필요성)
인권상임위원회	공립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0인 / 멘토 4인

교육상임위원회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
문화상임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해결방안
인권상임위원회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해결방안

contents

1 의장단 인사말 11

2 청소년의회 현황 14

3 본회의 식순 16

4 정책제안 및 조례(안) 18

5 활동기록 50

6 에필로그 55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인사말

인사말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존경하는 17만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조해원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본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지난 1년간 17만 고양특례시 청소년의 대표로서 청소년들의 삶을 더욱 이롭게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청소년 의원들과의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전 의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의원들과의 화합도 한층 성장했고 많은 경험을 한 만큼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17만 고양특례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며 오직 청소년들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이 더욱 더 살기 좋은 '고양특례시'로 만드는데 힘씁니다.

여러분, 드디어 본회의입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만든 정책이 반드시 고양특례시 청소년의 삶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 제안되는 모든 안건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3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으로 고양특례시 청소년 의회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1대 고양시 청소년 의회는 29명으로 시작하여 그 수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간다는 이유로 활동을 마다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존재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의 삶을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장 조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분들을 포함한 17만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박채야입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지난 몇 달간 힘써 준비한 정책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이번 6대 의회에서는 지난 4대, 5대 의회와는 달리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견학을 다녀왔고,
작년까지 COVID-19로 인해 하지 못하였던 워크숍을 진행하여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활동으로 인하여 이번 청소년의회에서는 유독 의원님들간의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 더 멋진 정책을 만들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활동에 응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많아 진행이 힘들었던 상임위원회도 있었으나, 이 또한 다음 청소년의회의 발받침이 되어 다음 의회를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회 의원분들께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청소년의회가 이곳, 고양시의회 본회의장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업과 활동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또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정책이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분들을 포함한 17만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멘토님들,
그리고 저희의 활동을 지지하고, 준비해주신 이슬 선생님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원장으로서 오늘 본회의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의원 현황 청소년의원 20인

연번	소속	성명	학교	학년	성별	지역구	구분
1	제6대 의장	조해원	성사중학교	3학년	여	덕양구	문화위원회
2	제6대 부의장	박채야	신일중학교	3학년	여	일산서구	인권위원회
3	교육위원회	이승헌	서정고등학교	1학년	남	덕양구	위원장
4	교육위원회	김다인	일산중학교	3학년	여	일산서구	부위원장
5	교육위원회	이서연	발산중학교	1학년	여	일산서구	
6	교육위원회	이승욱	발산중학교	3학년	남	일산서구	
7	교육위원회	임도연	백신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8	교육위원회	정하윤	도래울고등학교	1학년	여	덕양구	
9	문화위원회	이예령	정발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위원장
10	문화위원회	민지성	백양중학교	3학년	여	덕양구	부위원장
11	문화위원회	이기윤	능곡고등학교	2학년	남	덕양구	
12	문화위원회	조주연	백석중학교	1학년	남	일산동구	
13	안전위원회	권시우	백신중학교	3학년	남	일산동구	위원장
14	안전위원회	권세린	백신중학교	1학년	여	일산동구	부위원장
15	안전위원회	박소율	백신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16	안전위원회	이호윤	발산중학교	1학년	남	일산서구	
17	인권위원회	정서연	일산양일중학교	2학년	여	일산동구	위원장
18	인권위원회	양규리	호곡중학교	2학년	여	일산서구	부위원장
19	인권위원회	구은율	지축중학교	2학년	여	덕양구	
20	인권위원회	유은찬	고양중학교	2학년	남	덕양구	

멘토 현황 대학생 운영 멘토 4인

연번	소속	성명	학교	학년	성별	학과	비고
1	교육위원회	우인범	국민대학교	4학년	남	정치외교학과	
2	문화위원회	최재혁	인하대학교	3학년	남	정치외교학과	
3	안전위원회	김민재	동국대학교	1학년	남	정치외교학과	
4	인권위원회	유상혁	인하대학교	2학년	남	정치외교학과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식순

2023. 10. 21.(토) 10:30~12:30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

10:30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6대 청소년의회 활동 경과 보고

내빈축사

11:00
<본회의 개의>
의회팀장 보고
의사일정 안내
1~5대 주요 제안정책 현황 보고

정책제안발표
교육상임위원회(김다인 부위원장)
문화상임위원회(이예령 위원장)
안전상임위원회(권시우 위원장)
인권상임위원회(정서연 위원장)

5분 자유발언
- 정하윤 의원 -
- 민지성 의원 -
- 박소율 의원, 권세린 의원 -
- 양규리 의원, 구은율 의원 -

산회
단체사진
12:30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및 조례(안)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

제안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원명단	이승헌, 김다인, 이서연, 이승욱, 임도연, 정하윤
멘토	우인범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

제안상임위원회	문화위원회
의원명단	이예령, 민지성, 조해원, 이기윤, 조주연
멘토	최재혁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해결방안

제안상임위원회	안전위원회
의원명단	권시우, 권세린, 박소율, 이호윤
멘토	김민재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해결방안

제안상임위원회	인권위원회
의원명단	정서연, 양규리, 박채야, 구은율, 유은찬
멘토	유상혁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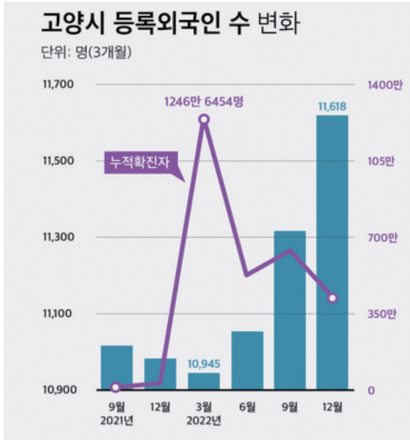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교육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
정책제안분야	교육
제안내용 요약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원활한 이중언어 구사를 위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언어교류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 간의 언어/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제안배경>

"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체계적 이중언어 교육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 제고가 필요한 시점 "



[그림1] 고양시 등록외국인 수 변화 (자료/법무부, 통계청)
출처_ 고양신문

코로나 완화 이후 고양특례시 관내 등록외국인(이민자)의 수가 늘고 있다. 이중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527명으로 전년 대비 29명 감소했으나 완만한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는 전국적 추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 자칫하면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기피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한다. 우리 교육에 있어 다양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관내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206명을 대상으로한 본 상임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청소년 접촉 비율은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접촉 비율과 달리 여전히 32.1%의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거리감에 대해 "(매우)멀다"고 답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리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언어적 요소'를, 30.5%는 '문화적/종교적 다름에 기반한 가치관 요소'를 꼽았고, 이어서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편견'(12.3%), '다른 피부색/인종 등 외양적 요소'(9.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언어적 요소'와 '문화적/종교적 다름에 기반한 가치관 요소'**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압도적 이유로 꼽혔다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사유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7년 기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일반가정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업 중단 사유는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이 꼽은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63.6%, 복수응답),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53.5%),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2.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선문대 김만호[1] 교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학습의 도구인 '언어'가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없고, 한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언어적 요소'를 꼽았던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꼽은 또 다른 어려움인 '문화적/종교적 다름에 기반한 가치관 차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상대가 나와 문화적/종교적으로 다른 집단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순간 내집단에 대한 편향, 외집단에 대한 배척 심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종교적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및 이주배경가정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 참여형태가 아닌 강사의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별로 교육 진행 여부가 다른 상황이다. 본 상임위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1년 이내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50.2%). 더욱이 다문화 교육을 수강한 학생의 27.8%는 해당 교육이 '(매우)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 간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무기삼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이주배경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2] 다문화학생 학교 부적응 이유 (자료/여가부), 출처_ 세계일보

<제안목적>

" 다국어 소통 능력의 증진과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관여와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재 양성 "

'제안배경'을 통해 상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적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본 상임위원회는 이상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중언어 교육의 일환으로써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청소년 간의 언어교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하여금 일상 수준에서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하여금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어보다 부모언어에 익숙한 다문화 청소년 간의 교류는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하여금 실실적인 회화 능력의 향상과 코로나 이후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청소년들의 자기주장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상임위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8%의 청소년이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식으로 '외국인과 교류하는 소통 학습'을 꼽았다. 반면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는 말하기 교육이 듣기, 쓰기 교육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과 외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능숙한지, 또는 자연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각각 70%에 달하는 청소년이 '(매우)능숙하지 않다', '(매우)부자연스럽다'라고 응답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언어교류 프로그램은 외국어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고양특례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이주배경 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통합적 사고방식을 갖춘 고양특례시 청소년 양성이야말로 본 정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는 이주배경가정 청소년과 한인 청소년과의 언어/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다국어 소통 능력 증진과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관여와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대상>

다문화/비다문화 가정의 중~고등학생(14세부터 19세까지) 및 동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관내에 위치한 다문화대안학교와의 업무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 누리다문화학교 등)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1.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시행

위 제안의 목표는 다문화 청소년 및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다. 월간 1회 내외, 총 6~10회로 구성하여 장기적인 교류를 지원하고, 참가자들의 성장과 상호 이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오리엔테이션 1회, 문화체험 활동 2회 내외, 숙박형 캠프 1회가 있으며 이외에는 참가자의 수준과 프로그램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각 참가자들의 배경과 언어 수준, 그리고 기대 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문화체험과 숙박형 캠프는 "이중언어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가장 많이 제출된 응답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환경 속 다국어 사용을 통해 회화 능력 향상에 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 위원회 설치

다문화 가정청소년 이중언어 및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기관,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양특례시의회 및 참가자 등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 활동에 대한 방향성,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시장 및 본 활동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제언을 적극 수용할 의무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후 반영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문화/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고충 사항을 수렴 및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원만한 활동 참여,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3.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기재

다문화/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본 활동을 교육부 및 교육청 등 소속기관에 의한 행사로 지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본 활동의 전담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 및 성실한 참여에 대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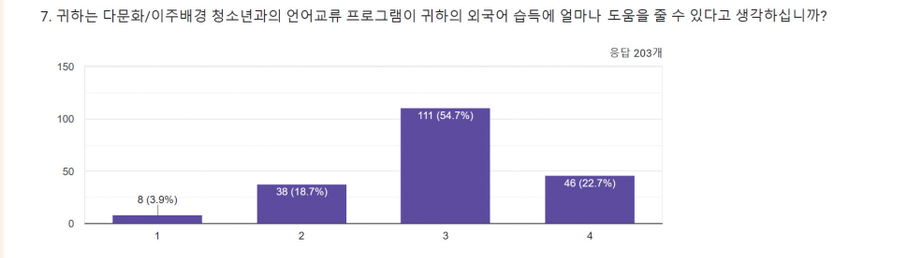
기대효과

1)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부모언어 구사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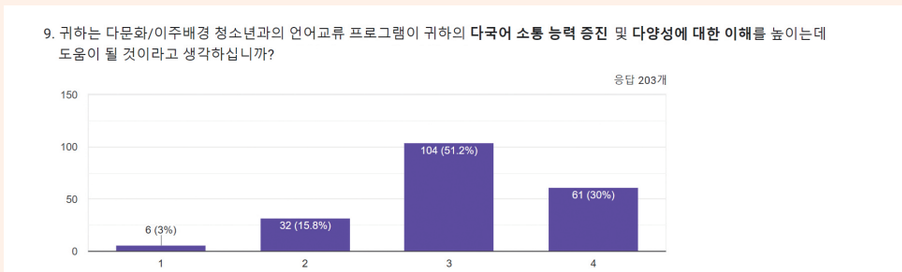
2) 이중언어 전문 교육 강사로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적극 채용함으로써 결혼이주민의 사회활동 장려와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 간의 직접적인 접촉 빈도를 늘림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성 인식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언어교류 경험을 통해 듣기/쓰기(문법) 위주의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자신감있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과의 언어교류 프로그램이 응답자의 외국어 습득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출처_ 자체조사



[그림4]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과의 언어교류 프로그램이 응답자의 다국어 소통 능력 증진 및 다양성 이해도 제고에 대한 응답 결과
출처_ 자체조사

1) "[다문화 학생 3%시대] ②따돌림·입학 거부…연필 놓는 아이들", 한국경제, 21.10.12.

고양특례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승헌 · 김다인 · 이서연 · 이승욱 · 임도연 · 정하윤 의원 / 우인범 멘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양특례시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 및 비다문화 청소년과의 언어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언어 및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이란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4.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부모 언어와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 등을 말한다.
5. "언어교류 활동"이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특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과 언어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을 통한 고양특례시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언어·한국어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과정
3.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 간의 언어교류 활동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직원) 시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의 연구 및 개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지원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언어 및 한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4.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5.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진행하는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근거 확립에 관한 노력)

①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개선안을 수렴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 등의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관련자는 이를 반영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시장·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전담직원 및 참여자 등 관련자들은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① 시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중언어 교육과 언어교류 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그 위원회가 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성하며, 위원은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과 언어교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문화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
정책제안분야	환경·문화
제안내용 요약	· 2006년부터 2년마다 -「고양 환경백서」가 발간되고 있으나, 관내 청소년에게 인지도가 낮고, 청소년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와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시기에 맞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환경백서를 함께 발간하는 것을 제안함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환경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생물적 환경과 비생물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생태학적 관점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이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문화)로 나눌 수 있다. 인문환경에서 문화가 형성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과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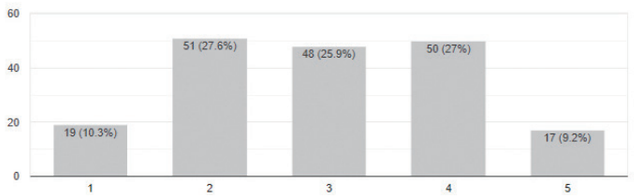
2021년 글래스고 기후협약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감축 목표와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적응'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과제로 인식되며, 대한민국도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후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

고양특례시에서는「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백서를 2006년부터 2년마다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고양특례시의 환경 현황과 그동안 추진한 환경정책의 성과를 담은 '2022 고양 환경백서'가 발간되었음을 확인했다.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발간된 환경백서가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게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백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 조사>

위 내용은 고양시에서 발간하는 「환경백서」의 일부분입니다. 사진을 보고 본인의 내용 이해정도에 체크해주세요.
응답 185개



*고양 환경백서 발췌문 생략

(이해하기쉽다 1 ~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5)

환경백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약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이해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 35% 청소년들만이 '이해하기 쉬운 편'에 응답하였고, 65%의 청소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편'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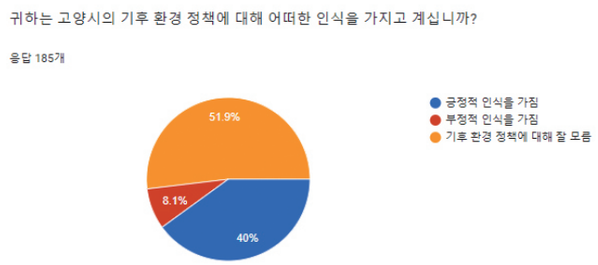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환경백서를 읽고 내용을 인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 낮은 가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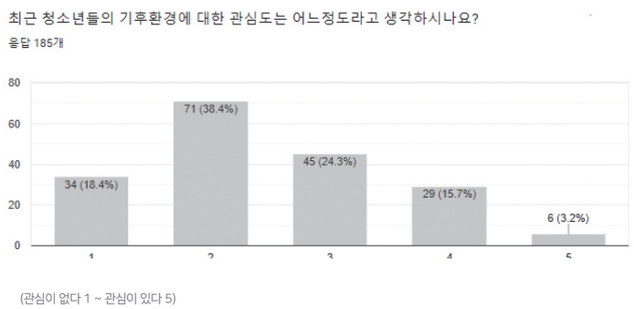
청소년에게 생소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 또한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있어 가독성이 매우 낮다.
예를 들어 환경백서의 내용 중에는 '감축인벤토리' 같은 전문성이 담기거나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된다. 이에 청소년들은 감축인벤토리에 관한 내용이 분석과 함께 나와있어도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매우 길게 작성되어있어 청소년들이 작성된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두 번째 – 낮은 인지도 및 관심도>

제작 후 배포만 되고있는 환경백서는, 2006년부터 2년마다 발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들은 환경백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특례시의 환경정책을 담은 환경백서의 존재를 청소년들은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고양특례시 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고양시의 기후 환경 정책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51.9%의 청소년들이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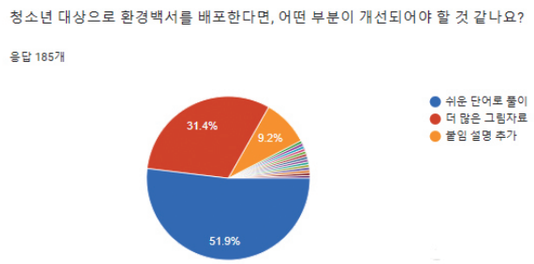
'최근 청소년들의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38.4%가 "관심 없다" 라고 답변하였고 24.3%가 '그저 그렇다', 단지 3.2%의 청소년들만이 '관심 있다'고 답변하였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정작 환경백서는 물론 환경에 조차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자료조사를 위해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의원들과 함께 환경백서를 읽어보았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전문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환경백서를 통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백서 내용을 적절한 콘텐츠로 구성 및 활용하여 제작해주어야 한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결국 미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주체는 청소년들이고 청소년들 스스로 기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환경정책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용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용 환경백서 발간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환경백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환경백서에 쓰이는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림 자료를 삽입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이하거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문을 백서의 하단이나 별도의 부록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기존보다 환경백서를 수월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긴 글을 그대로 읽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복잡하게 보인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글을 읽고자 하는 의지를 감소시킨다. 그림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집중을 높이고 긴 내용의 요약본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쉬운 단어로 풀이'가 52%로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제시되었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그림 자료가 필요'하다고 31.4%가 응답했다. 9.2%의 청소년들이 '붙임 설명을 추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청소년 환경백서의 인지도와 환경정책 관심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중 한 곳인 교내 온라인 알리미 시스템 'e-알리미' 등에 고양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곳(학교주변, 학원가, 청소년자유공간, 청소년시설 등)에 짧은 요약본을 배치해 둠으로써 접근성과 인지도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경 강의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경백서를 언급하거나, 청소년 과학 잡지 등에서 특정 회차마다 환경백서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도 환경백서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백서를 단순히 배포하는 것이 아닌 환경 축제(산림 관련 분야는 식물 심기 체험을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부문에서는 재활용 체험을 하는 등 청소년들이 직접 환경백서의 내용을 경험해보는 환경 조성 등), 서포터즈 창설 등을 통해 고양특례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매회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면 환경백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환경백서는 한 번에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긴 문장과 생소한 용어로 작성이 되어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처럼 문화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환경백서를 새롭게 발간함으로써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가 향상될 것이며, 적절한 프로그램 및 홍보가 함께 뒤따라 준다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고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대효과

-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가 고양특례시 환경정책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지도가 낮았던 환경백서 및 환경정책의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환경백서를 통해 고양특례시 청소년이 환경정책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이예령 · 민지성 · 조해원 · 이기윤 · 조주연 의원 / 최재혁 멘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제2조(기본이념)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① 환경우선의 원칙
②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③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④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⑤ 환경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②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③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④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⑥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⑦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

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⑧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①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④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⑤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⑥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⑦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⑨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화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제8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청소년 환경백서)

① 시장은 제9조에서 공표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청소년 환경백서를 2년 마다 함께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용어 사용
2. 시각적 이미지 적극 활용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안전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해결방안
정책제안분야	안전
제안내용 요약	·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와 조례 명시를 통한 정당성 강화 · 현행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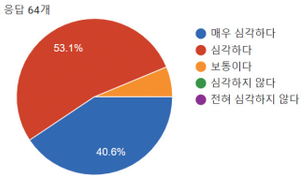
1.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자살 문제의 수치적 현황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 부동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3,352명이며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6.0명이다. 실제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다른 국가가 빼앗아 간 해는 2016년과 2017년뿐으로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칭호가 고정 관념으로 박혀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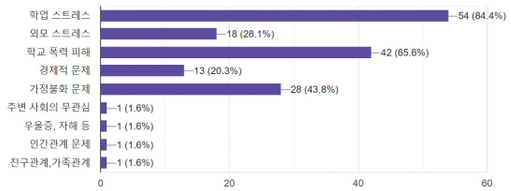
이러한 현황에서도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고,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사례는 바로 10대(청소년) 자살이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1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무려 43.7%를 기록했다. 이는 성인 자살률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2] 우리 안전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3.7%의 청소년이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성인 연령대와는 달리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피해', 그리고 '가정불화'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 사회로 촉발된 '학업 스트레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 청소년 자살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64개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응답 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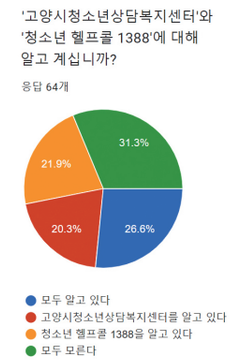
2. 현행 조례의 문제점

현재 우리 고양특례시에는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3] 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는 분명한 허점이 발견된다. 신체

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충동성이 다소 높고, 과도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미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살'은 성인 연령대의 자살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과 양상을 보인다.[4] 그렇지만, 위 조례에서는 청소년 관련 언급이 제5조 2항의 1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단 한 차례만 등장하는 현황이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특수한 정책·조례적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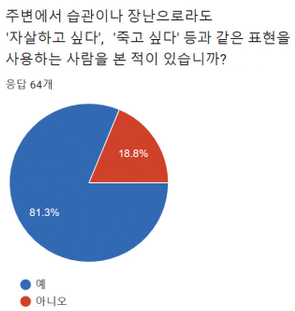
3.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의 정당성 및 홍보 부족

청소년 자살 문제는 비단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등을 운영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생각보다 매우 꼼꼼하고 견고하게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할 점은 이러한 시스템의 정당성이 잘 확보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잘 홍보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고성군, 과천시 등과 달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현황이다. 마찬가지로 1388의 경우 역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을 전담하는 117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현행 교육의 매우 낮은 실효성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자살 예방' 혹은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금의 교육을 통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약 90.5%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청소년은 약 20.6%에 불과했다.[5]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교육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우려가 있기에 이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 생명 존중 문화의 결여

단순히 가벼운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문화에서 현재 '생명 존중 문화'가 다소 결여되어 있다.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이를테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거나,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죽고 싶다', '한강 물 온도를 체크한다' 등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형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가벼운 장난으로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일상 언어에 그리 적합한 표현이 아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생명 존중 문화의 결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여고생 자살 생중계 사건', '베르테르 효과' 등 각종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청소년 생명 존중 문화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상임위원회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 명시 및 적극 홍보'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제고', 그리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언급한 모든 제안 내용은 함께 발의하는 「고양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통해 명시하고 뒷받침한다.

1.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 명시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그 조직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문자로서 명문화한다면 더욱 촘촘한 상담 활동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명문화 방식으로는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삽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

2. 실효성 높은 생명 존중 교육

형식상으로만 진행되던 현행 교육을 타파하고, 보다 실효성이 높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생명 존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공공시설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홍보하는 등 청소년들의 연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해지길 요청한다.

3.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 개최

무엇보다 가장 흥미 높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안전 문화 확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축제라고 판단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가칭)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축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청소년재단 혹은 관련 단체에서 주최하여 광장 등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조사 결과 많은 청소년 응답자가 축제를 개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해당 축제에서 진행하면 좋은 몇 가지의 구성을 예시로 제안한 것이다.

① **문화 예술 공연** :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등을 비롯한 주제로 뮤지컬이나 연극 등 공연을 진행
② **활동적인 체험 거리** : 음식 만들기, 공예, 운동 프로그램 등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활동
③ **무료 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복지센터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가벼운 고민 상담부

터 시작해 위기 청소년의 상담 치료 등 전문 지원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축제에서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벼운 상담부터 시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④ **전문 석·박사 초빙**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 상담사 등 본 축제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과 더불어 성인층까지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와 관련하여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자연 속에서의 휴식** : 공원과 같이 조용하거나 자연적인 공간에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

기대효과

1.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서 명문화하여 센터의 활동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을 상시화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3.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가장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안전한 고양특례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4.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률이 높아져 우울감을 느끼거나 고민거리가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2023 자살예방백서」
3) 시행 2020.5.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40호, 2020.5.29. 일부개정
4) 서고운,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pp.1-167
5) 5점 척도 중 4점 이상을 선택한 청소년(4:효과가 있다, 5:매우 효과가 있다)

고양특례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
권시우 · 권세린 · 박소율 · 이호윤 의원 / 김민재 멘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일상이 안전한 고양특례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②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③ "위기 청소년"이란 일련의 개인 및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④ "학교"란 고양특례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특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3. 청소년 상담 사업
4.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5. 각종 교육 사업
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적극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보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통해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운영하도록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지원·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 재산 또는 공공시설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인권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해결방안
정책제안분야	인권
제안내용 요약	·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에 맞는 학생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학생의 인권 침해 시, 신고 및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한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함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표면적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를 몰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례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상임위원회에서는 학생 인권 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차별과 언어적인 표현 탓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제6대 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에서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 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2020년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직접 처벌을 받기보다는 비하적 표현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이 더 많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학생의 15.5%가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교 급 별로는 중학생 22% 고등학생 18.4% 초등학교 7.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도내 중학생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 14.8%가 체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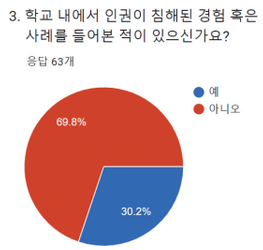
<성적에 따른 차별>

또한, 경기도 내 학생 4명 중 1명은 성적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고등학생 30.7% 중학교 19.5% 초등학교 10.7% 순이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에도 학교 내에서 교사의 체벌과 언어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도내 청소년들이 성적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또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자 한다.

2. 고양시 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설문조사

인권상임위원회는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 개설'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설문조사 내용 중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듣거나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서 63명 중 30.2%의 청소년들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3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해 사례는 타 학생과의 차별, 언어폭력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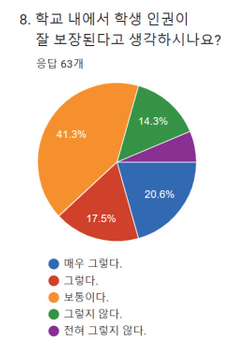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 인권 옹호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학생 인권 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 구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보장한 후 해당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상임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3명의 설문조사 참여자 중 78.2%의 청소년들이 학생 인권 옹호관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인권 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에 옹호관의 존재 조차 모르는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다.

3. 학생 인권 조례

현재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 인권 침해를 신고하기 위해선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해야 하며 조사 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학교 및 교직원에게 통보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들은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과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쉽고 편리하게 알리기 어려운 현황이다.

때문에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면 간단하게 내용을 남기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더 쉽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은 사회에서 크게 대두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 인권 침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끝으로, 학생 인권을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 개설을 제안한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권상임위원회는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 개설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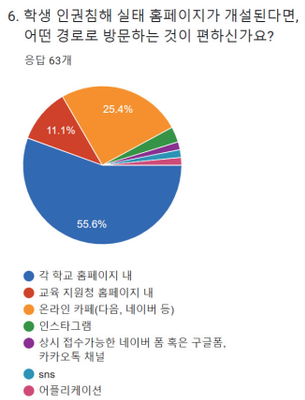
현재 학생 인권 조례를 위반하였을 시에 해당하는 대처가 미숙하다. 전주 MBC 뉴스[6]에 따르면 학생 인권 조례를 위반하였지만 현재는 대처가 늦고,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는 더 쉽고 빠른 신고 방식과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장과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들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많다.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 측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권상임위에서 제안하는 "학생 인권 보장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홈페이지에서 수집된 건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장에게 보내 학생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학생 인권 옹호관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언급한 제안인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는 '학생 인권 조례' 위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

인권상임위원회는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고, 어떤 형식으로 제작해야할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63명의 청소년 중 55.6%가 학교 홈페이지 내에 배너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표했다. 때문에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는 각 학교 홈페이지 내에 배너로 설치할 예정이다.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서버를 바탕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 내에 배너로 홍보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의 유입을 도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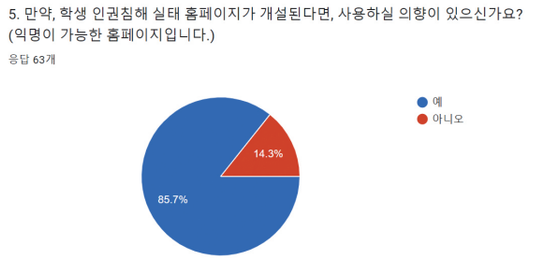
학생 인권 침해 신고 양식은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보일지, 비밀리에 운영자에게만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학생인권 옹호관으로 구성되며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또한 운영자로 간주하여 비공개건에 경우 교장과 교감,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공개가 된다. 이는 해당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복과 2차 피해로부터 막고,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다만, 욕설을 사용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막기 위해 욕설 사용을 홈페이지에 작성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또한, 학생들이 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예/아니오) 어떤 종류의 인권 침해를 당하셨나요? (1. 차별 2. 폭행 3. 언어폭력 4. 기타)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외에도 주관식을 추가하여 누가 그러한 행동/언어를 사용하였는지도 작성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전제:
1) 욕설을 쓰는 다수의 학생들을 막기 위해 욕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를 설정해야 한다.
2) 실명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외부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3) 각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전반적인 운영은 학생 인권 옹호관이 담당한다.
5) 처벌, 혹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전, 충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교사들에게도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학생 인권 옹호관은 기존의 업무와 추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업무가 늘게 될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매달 소정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여 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예산>



개별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학생들의 유입을 도모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다 더 퀄리티 있는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선 예산이 대략 1000~1500만원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며 옵션을 추가함에 따라 추가금이 필요하다. (다만, 어떤 회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할 수 있다.)
또한, 매달 학생 인권 옹호관의 추가 급여가 필요하며 이는 고양 시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이 정책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고양특례시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인권 상임위원회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3명 중 85.7%의 학생이 '예'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는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학생 인권 침해의 대처가 될 것이기에 '학생 인권 강화 홈페이지' 개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의 인권이 대두대며 더 잘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
2. 교사 평가로는 나오지 않았던 인권 침해 문제들을 교장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고양특례시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에 힘쓰는 미래를 기대한다.
4. 학생들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되어 보다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기대한다.

6) 「학생인권 침해 교사..처벌 왜 늦어지나? (전주MBC, 23.1.18.)」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조례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정서연 · 양규리 · 박채야 · 구은율 · 유은찬 의원 / 유상혁 멘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청소년 인권 존중과 청소년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② "청소년" 인권 (즉, 학생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③ "청소년 인권 침해"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른 모든 침해 상황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특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양특례시 청소년 인권 보장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의 체계적 해결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청소년 인권 보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홈페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안심 신고 센터
2. 각종 법적 해결
3.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해결
4. 청소년 인권 침해 접수 및 조사
5.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 의식 향상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보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 의식 향상 교육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 인식 향상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 의식 향상 교육을 운영하도록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기록

3월

오리엔테이션 / 의회 소개 및 연간 일정안내 / 상임위원회 구성

4월

출범식 / 의장단 선출 / 모의회의(5대 본회의) / 상임위원장 선출

5월

사회적경제 & 사회적 가치 교육 / 정책워크숍 준비(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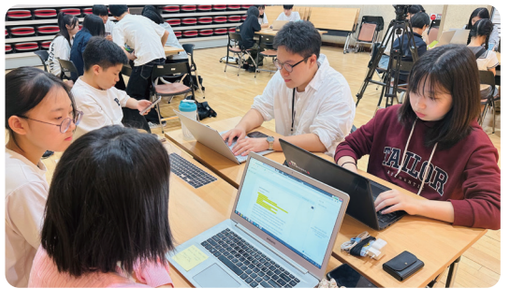
6월

경기도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 정책워크숍 준비(2차)

7월

정책워크숍 국회&청와대 견학 / 상임위 제안정책 현황보고 / 상임위 회의

8월-9월



상임위원회 소모임(정책회의, 설문조사, 제안서작성 등)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에필로그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의장 조해원
(성사중, 3학년)

나에게 고양시 청소년 의회란 새로운 기회였다. 중학교 1학년 추가모집으로 고양시 청소년 의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평소라면 귀찮다며 지원하지 않았을 것을 충동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아마도 나에게는 코로나로 무료했던 일상을 바꿔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 담당자 선생님과 면접을 진행하여 고양시 청소년 의회 의원이 되었다. 제 4대 고양시 청소년 의회에서는 얼떨결에 문화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고양시 청소년 의회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갑자기 주어졌었다.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고양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청소년들의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다. 나이가 어리지만 열심히 참여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를 좋게 보시고 내년에도 함께 활동하자고 제안하셨다. 나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 작년에는 부의장이라는 책임감 있는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양시 의회는 나에게 계속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 힘들기는 커녕 이제는 이 활동이 너무도 재미있다. 제6대 고양시 청소년 의회에서는 의장이라는 직책에 도전해보았다. 감사하게도 당선되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정말 노력했다. 고양시 청소년 의회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접할 수 있었고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안겨준 고양시 청소년 의회와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이 활동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부의장 박채야
(신일중, 3학년)

저는 지난 3년간 의회 활동을 하며 일반 의원, 상임위원장을 거쳐 부의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활동의 사이의 갈림길에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정책 내용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우리 고장, 고양시의 자라나는 인재들. 청소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음 제7대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저희의 정책이 시행되어 17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위 위원장 이승헌
(서정고,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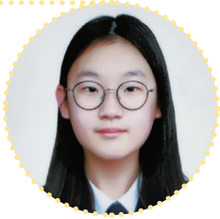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17만 고양특례시 청소년을 위해 솔선수범 나서서 바쁘게 뛰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면서, 의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며 성장해 더 큰 세계로 발돋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의회가 존재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빠르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이로서 지역의 발전과 청소년 인권에 이바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참여기구라고 생각한다.

교육위 부위원장 김다인
(일산중, 3학년)

저에게 청소년 의회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제 주변의 여러문제들을 인식하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상하며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의 힘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여러 회의와 교육, 교류활동을 통하여 논리성,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며 정책제안서 작성법, 조례안 작성법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지도자 선생님과 멘토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여러 활동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위 위원장 이예령
(정발중, 3학년)

고양시 청소년 17만을 대표하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장 이예령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법과 리더쉽,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과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써 저는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고 팀원과의 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작지만 강력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청소년 의원들은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 의회는 또한 청소년의 열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무게는 큽니다. 청소년 의회는 작은 물결이지만, 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물결을 일으키면, 그 파장은 멀리까지 전달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계속해서 작은 파동을 일으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서 뜻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낸 조례안이 실제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점이 청소년 의회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고양시의 17만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과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문화위 부위원장 민지성
(백양중, 3학년)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경험입니다! 청소년의회가 아니었으면 못 해보았을 활동들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17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것부터 청소년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살피고,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바뀔 고양시를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의회이기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힘들기도 했으나, 이 과정과 결과는 모든 걸 감수할 만큼 가치있습니다! 청소년의회를 고민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큼 값진 시간이었습다 청소년의회는 저에게 엄청난 경험을 선물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안전위 위원장 권시우
(백신중, 3학년)

나에게 청소년의회이란 청소년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 그 힘든 시기를 더욱 행복한 시기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펼쳐, 청소년의 미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의 의원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정책을 만드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다만 주변 의원들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여러 정책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상임위 멘토님의 여러 의견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멘토님들과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정책 제안에 성공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위 부위원장 권세린
(백신중,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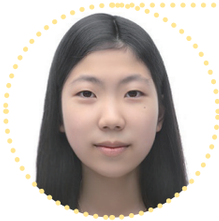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기회입니다.
그냥 의회가 아닌 청소년의회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나라가 움직이는 방법, 고쳐야 할 문제들, 모두 어른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 직접 청소년에게 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회가 개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귀한 기회니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기회고 이 기회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잡아야하고 청소년들을위한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또한 저는 고양청소년의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떨렸습니다. 특히 면접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야 해서 긴장했죠. 그렇지만 면접을 무사히 통과했고 고양청소년의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또 재밌었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의회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고 그걸 이룬 것 같아요. 제 발표 능력과 협동심 모두 발전한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고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 봅니다. 많은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권위 위원장 정서연
(일산양일중, 2학년)

나에게 청소년 의회란 처음이 가득한 곳이다. 처음 해본 면접과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만나 새로운 내용을 배웠다. 지원서를 쓰고 면접까지 본 만큼 값진 경험들이 가득했다. '의원' 이라는 명칭이 낯설고 부담이 됐다가도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그 호칭에 책임을 느끼기도 했다. 준비할 것도 많아 서툴지만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아,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있는 순간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

인권위 부위원장 양규리
(호곡중, 2학년)

나에게 고양시 청소년 의회란 무지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여러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청소년 의회도 여러 개의 상임위와 그 상임위 속에 여러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지개에 남색과 같은 어두운 색만 있는 것이 아닌 노랑, 초록, 파랑과 같이 밝은 색도 있다는 것이 청소년 의회 활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정책 제안을 시작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히지 않아 어려운 느낌이 들어 남색 같았다면 같은 상임위 의원들과 얘기하며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 과정은 쉽지 많은 않지만 그래도 노랑, 초록과 같은 밝은 색처럼 큰 걱정없이 진행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고양시 청소년 의회로 활동하였는데 고양시 청소년 17만을 대표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작성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완성하면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정책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며 마냥 어른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덕분에 고양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위 의원 이서연
(발산중, 1학년)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문과 같은 존재이다. 의회 활동을 하며 여러 문을 여는데 그 문 뒤에는 험난한 산이 기다리기도 했고, 완만한 바다가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청소년의회의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이 많은 일종의 시험들을 통과해 나갔다. 쉽게 말해 청소년의회는 나에게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존재이다.♡

교육위 의원 이승욱
(발산중, 3학년)

나에게 청소년 의회란 봉사라고 말 하고 싶다. 청소년 의회를 들어왔을때의 목표또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었다. 작년 부터 이번 년도까지 청소년의회를 연임하면서 고양시 청소년들에 봉사를 해준것 같아 정말 기쁘다.또한 많은 부분에서 성장할수 있었다.

교육위 의원 임도연
(백신중, 3학년)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제가 어릴때부터 사회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소망을 이루어준 고마운곳이며 또한 고양시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해줍니다!

교육위 의원 정하윤
(도래울고, 1학년)

저에게 있어 청소년 의회는 꿈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처음엔 뭔가를 구상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면접을 본 것,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낸다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가 저의 값진 성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4년간 이어오던 꿈이 바뀌는 아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만나기 힘든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분명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분명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청소년 의회에 대해 먼 훗날 회상했을 때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많은 고양시 청소년들이 의회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6대 고양시 청소년 의회로 활동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고, 함께 달려온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위 의원 이기윤
(능곡고, 2학년)

나에게 청소년 의회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걸음이 단순 청소년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한다면 이런 청소년 의회를 거치면서 더욱 성장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로 나아간다면 결과적으로 고양시 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발전 시 키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기에 나에게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발전시키고 경험 시켜주며 나중에 청소년이 아닌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빛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위 의원 조주연
(백석중, 1학년)

나에게 청소년의회는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꿈이고 고양시 청소년 모두를 넘어서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안전위 의원 박소율
(백신중, 3학년)

나에게 고양시 청소년 의회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다. 또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협력하며 소통을 배웠다. 정책 제안이라는 흔치 않은 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같이 노력하는 친구들과 많은 경험을 느끼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다음번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안전위 의원 이호윤
(발산중, 1학년)

나에게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특별한 공동체다.
나이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른 청소년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의원 구은율
(지축중, 2학년)

처음에는 이것이 청소년 의회라는것만 듣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에 합격을 한 뒤에는 걱정이 많이 됐었다 내가 과연 이곳에 들어와서 잘 적응을 하고,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정말 컸던것 같다 하지만 내 걱정과는 다르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같은 소속의 청소년 의원들도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안심이 되었던것 같다 청소년 의회는 무조건 회의만 하고 재미없는 활동만 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같이 워크숍을 가거나 다른 기구와 같이 모여서 친목 활동을 해서 의외라고 생각했고 막상 회의도 해보니 같이 의견을 내고, 설문조사를 하고,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것 같다 현재 사회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것이 정말 뿌듯했고 나와 같이 활동에 참가해준 의원들에게 고마웠다 청소년 의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해치워 나가면서 더 성장한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의회는 새로운 기회이다.

인권위 의원 유은찬
(고양중, 2학년)

의회를 하면서 느낌점은 의회 활동을 할때는 뿌듯함을 느꼈던것 같다 배운점은 의회활동을 하면서 정책제안같은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한것을 한것같고 내가 너무 시간이 안맞아서 의회활동을 못한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될것 같다. 하지만 굉장히 뜻깊었고 다음에도 하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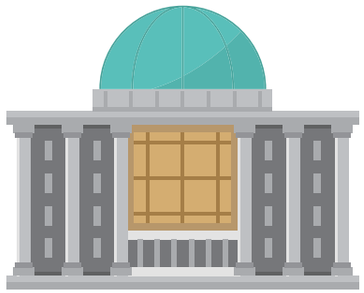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교육위 멘토 우인범

개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말하는 법과 글로 쓰는 일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과 소통이 불가능한 녹화강의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역량은 쉽게 갖추기 어려운 것이 되었지만, 본 청소년의회 활동이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즐거웠던 만큼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앞으로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위 멘토 최재혁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회 멘토 최재혁입니다. 올해로 멘토 활동을 3년차 지속하고 있는데요,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우수한 청소년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을 경험하고,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분명 값진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찾아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용어부터 <정책제안서>작성 방식까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청소년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가면서 멘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SDGs를 고려한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회의 글로벌 감각 역량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17만 청소년을 대변하는 자리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한 청소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의원들이 고군분투하여 만든 정책이 고양시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있게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이슬 선생님과, 박미나 부장님, 고형복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위 멘토 김민재

작년에 이어 멘토 활동을 하며 한 해 동안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의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고민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우리가 제안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조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5년째 함께 하고 있는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은 나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척 뜻깊은 활동이다. 앞으로도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성공을 응원할 것이다.

인권위 멘토 유상혁

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멘토라는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은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인 만큼 많이 서투르고 청소년분들과 같이 조례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 자신이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 많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신 청소년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이고 이번 활동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조례 제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양시 청소년이 교육, 문화, 안전,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관내 유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양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고양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4. 고양시 청소년 관련 조례 제안 및 제정
5.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3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선거를 통해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청소년의회의 구성을 위해 청소년의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 면접을 통해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의회는 선거 관련 사무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7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퇴하거나,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제명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즉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의원의 사퇴)

①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의원직 사퇴 권고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원의 사퇴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원의 징계)

① 의원은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징계될 수 있다.

② 의원의 징계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교육위원회 8명 이내
3. 안전위원회 8명 이내
4. 인권위원회 8명 이내
5. 환경·문화위원회 8명 이내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의 제청으 로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⑥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전체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또는 시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청소년의회의 회의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5조(의견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 )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칙)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제17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집

발 행 일 2023. 10. 21.
발 행 처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발 행 인 고 형 복
편 집 인 이 슬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대표전화 031-995-4156
홈페이지 www.gcyf.or.kr/vote
발간번호 GCYF-2023-02-002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특례시**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집

고양특례시 |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고양시청소년의회 Goyang City Youth Council |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